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술에 취해 부르는 이 노래 '취가정'		
활동목표	- 누정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취가정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본다. - 충효동 김덕령장군의 업적을 따라가 본다.		
해설주제	누정문화와 취가정, 충효동의 인물 김덕령		
해설재료	취가정, 김덕령	소요시간	10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시간(“)	비고
시작	인사	- 인사 - 일정 및 주의사항	1	
주제 해설	취가정	- 담양 누정문화의 이해 - 취가정에 담긴 의미	3	
	충효동 김덕령장군	- 충효동의 의미 - 김덕령장군의 삶	5	
정리	마무리	- 소감나누기 - 마무리 인사	1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술에 취해 부르는 이 노래 '취가정'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취가정 해설을 맡은 무등산생태탐방원 000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누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대답유도) 네 흔히들 누정이라 함은 자연풍광을 감상하고 은둔하여 풍류를 즐기거나 학문을 닦는 창작과 수양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취가정은 독특하게도 특정한 '김덕령'장군의 님을 기리기 위한 일종의 추모정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곳의 주인은 제목처럼 무엇이 그리도 슬퍼 술에 취해 노래를 불렀는지 저와 함께 가슴 먹먹해지는 취가정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가정 총효동 김덕령장군	<p>가장 먼저 이 누정이 어떻게 취가정(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는 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총장공'김덕령장군과 '석주'권필이라는 인물을 알고가야 합니다.</p> <p>먼저 '총장공'김덕령은 본명보다 '총장공'이라는 시호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에게 내리는 시호인 총장을 받은 사람을 높여 '총장공'이라 부른다. 이와 유사한 시호로는 총무, 총정 등이 있는데 총무는 12명, 총장은 15명이 각각 동일한 시호를 받았습니니다. '총무공'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대답유도) 네, 맞습니다. '총무공'이순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순신장군은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죠 그만큼 '총장공'김덕령장군도 애국과 충절의 표상인 인물이었습니다. 김덕령 장군은 광산김씨로 본관은 전라도 광주 석저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친이 어느 날 무등산에서 호랑이 두 마리가 내려와 방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임신을 하였는데 김덕령을 출산하는 날 호랑이가 문밖에서 기다리다가 대숲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덕령에게는 김덕홍이라는 형과 김덕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덕령은 큰형 김덕홍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고 전란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큰형 김덕홍은 김덕령에게 흠여머니와 동생을 돌보라고 권유하였고 김덕령은 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산전투에 참여한 큰형 김덕홍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덕령은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고향에 묻혀 흠여머니를 모시게 되는데 이듬해 지성으로 섬기던 흠여머니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김덕령은 의병장의 부름을 받지만 효가 총보다 앞선다는 유가의 원리, 상중죄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왜군의 침탈이 노골화 되자 어머니의 100일장을 마친 11월 김덕령은 검은 상복을 입고 담양에서 약5,000여명의 의병을 모집하게 됩니다. 또한 영남지방에서도 의병을 모집하게 되는데 담양에서 출발하여 순창, 남원에 이르기까지 의병들의 군사훈련을 시켰고 조정에서도 그 기대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된 전란으로 식량과 무기가 부족하게 되고 더욱이 왜구와 적당한 화해를 하라는 명나라의 전투중지 명령으로 제대로 싸울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사기가 날로 저하 되었습니다. 김덕령은 제대로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도 세우지 못하였고 또한 그를 시기하는 무리도 생겨났습니다. 그 때 선조는 김덕령을 선봉으로 하여 권을, 이순신, 곽재우 등 과 함께 거제도에 은거하고 있는 왜군을 소탕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명은 김덕령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 꾸민</p>

계약이었고 곽재우는 이 일이 김덕령이 원하는 일이 아님을 알고 권율에게 계획을 물릴 것을 청하였으니 듣지 않아 여러 장수들은 마지못해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김덕령은 거세도로 진군하였으나 이미 성 위에서 진을 치고 있던 왜군들의 비오듯 쏟아지는 총알을 어찌 못하고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김덕령은 선조와 여러 사람들에게 축망을 잃고 본인 또한 충을 위해 효를 버린 것에 대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충청도에 이몽학이라는 자가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이몽학의 난입니다. 예전 차승원과 황정민이 연기한 그르믈 버서난 달처럼이라는 영화로 개봉된 적이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몽학이라는 자가 군사와 민심을 모으기 위해 김덕령과, 곽재우 등이 함께 가담한다는 헛 소문을 내고 사람들은 이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김덕령은 곽재우와 함께 권율의 명을 받아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김덕령이 난을 진압하기도 전에 내부 반란으로 인해 이몽학이 피살되면서 난은 진압되었고 김덕령은 권율에게 본가로 돌아갈 것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진인 진주로 내려갔는데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몽학의 난에 연루되었다는 소문 때문이었는데 얼마가지 않아 그 소문은 거짓으로 드러나 곽재우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풀려 나게 되었으나 김덕령만은 풀려나지 못하였는데 김덕령의 기세와 민심을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김덕령은 26일 동안 6차례의 극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정강이 뼈다 다 으스러지고 목숨만 겨우 남아있었으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충청도 이루지 못하면서 삼년상을 이루지 못한 불효의 죄'라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직감한 김덕령은 "춘산에 불이 나니"라는 시조를 지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 하였습니다.

춘산에 불이 나니 못다 핀 꽃은 다 죽는구나.

저 산의 저 불은 끌 수 있는 물이나 있지만

이 몸의 연기 없는 불은 끌 수 있는 물이 없구나.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무인이나, 왜적의 적장과 내통이 있다는 모함으로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였다. 그 일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노래한 시조이다.

초장의 '춘산의 불'은 '임진왜란'을 비유한 것이며, 못다 핀 꽃'은 전쟁을 통해 수 없이 쓰러져 간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 내지는 할 일을 다 못하고 죽어 가야만하는 자기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중장의 '물'은 전쟁에서의 승전이나 화해 등을 비유한 것이며, 종장에서 말한 작자 자신에게 일어난 '내 업슨 불'은 '알아 주는 이 없는 억울한 심정'을 비유한 것이다.

자신에게 닥친 뜻하지 않은 억울한 상황을 갑작스럽게 '불'이 난 것으로 표현한 점이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현명하지 못한 임금과 간신배가 득실거리는 상황에서 진정한 애국 충렬이, 유용한 명장이 화를 입고, 국운이 더욱 기울어져 버리는 실례를 우리는 역사상에서 흔히 접할 수가 있다. 젊은 용장 김덕령의 경우도 그것의 하나이다. 훌륭한 인재가 불의

의 희생이 된다는 것은 애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라는 시조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그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또 다른 인물 '석주'권필이라는 자는 '송강'정철의 제자이며 19살이 되던 해에 장원 급제하였으나 뒤늦게 한 글자를 잘못 쓴 것으로 밝혀져 합격이 취소되는 불운을 겪습니다. 그 후로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풍류를 즐기며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가 호남을 방문하던 중 송제민이라는 인물을 만났고 서로 뜻을 교유하다 송제민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사실 송제민은 김덕령과 막역한 사이로 김덕령이 옥사하자 하루 종일 통곡하였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레 김덕령과도 뜻을 나누게 된 권필이었습니다. 김덕령이 세상을 떠나고 어느 날 '석주'권필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속에서 작은 책자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취시가' 취가정에 편액으로 걸려 있는 취시가였습니다. 취시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잔하고 부르는 이 노래 듣는 이 아무도 없네

나는 꽃과 달에 취함도 원지 않고 공훈을 세우고 싶지도 않네

공훈을 세움은 뜬 구름이나 다름없고

꽃과 달에 취함도 뜬 구름과 한 가질세

한잔하고 부르는 이 노래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네.

내 마음 다만 바라기를 긴 칼 들고 밝은 임금 받들고 싶을 뿐.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권필은 답가 한 수를 지었습니다.

장군께서 지난 난 칼과 창을 잡았으나

장한 뜻 중도 꺾일 운명임을 어이하리

지하의 꽃다운 녀 운명임을 어이하리

한 곡조 취시가에 뚜렷이 담겼어라

이렇게 '석주'권필은 '취시가'와 답가를 통해 김덕령의 억울한 혼을 달래면서, 어리석은 선조를 은유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취가정은 그렇게 '충장공'이 취했을 때 부른 노래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고, 1890년 후손인 김만식은 문종과 협력하여 '취가정'을 지었습니다. 이는 김덕령의 아픈 삶을 달래기 위한 건립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취가정은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풍경으로 노래하듯 고요하면서 가슴 먹먹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마무리

네 저의 해설은 여기까지 하면서 이어지는 막내 김덕보의 이야기는 000 해설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해설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인사 드리며 저는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